

[2019-5-12] 주일 말씀 녹취록

제목 : 복음만 바라보자

말씀 : 강만석 목사님

본문 : 빌 4:6-13

6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손에서 자유 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으신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과 똑같은 마음과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철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잃고 산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냥 진흙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크나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영과 함께 자유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유는 하나님의 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에서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기독교라고 할 때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했을 때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미신과 팔자에 메이지 않습니다 미신과 팔자에 메이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신과 팔자 같은 것은 주지 않으셨고 여기에 묶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 자유,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유는 선택을 의미하며 자유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자유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을 우리 건축의 비유한다면 미신은 우리의 집이 신의 맘대로 지어져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저들은 운명,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삶을 마음대로 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도와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창조 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창조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입니다.

사랑은 구속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까지도 소유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은 자유입니다 물론 사랑은 소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가 선택한 소유입니다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버림받는 어처구니 없는 아픔을 당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어 당신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서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고 또한 소중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과 자유를 배제한다면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여도 출세하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영과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게 받은 구원을 사단은 귀중함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세상에 본인이 제일 잘난 것처럼 살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고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며 모든 것을 거꾸로 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사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세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안의 생활 못 하게 세상에 얽매이게 종처럼 사는 것은 사단이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면 밤, 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쓸데없는데 지나친 욕심에만 매여 살게 됩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늘 걱정선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며 살 때 가장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지향적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종이 된 인간이 자신을 끝도 없이 욕심 채우는데 남을 공격하며 살다 서로 함께 망합니다 자신이 결국 함께 죽게 되는 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삶의 자유함을 얻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삶의 자유를 얻은 사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늘 신이 나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에 모든 사람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있는 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 메인 자들이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땅과 세상을 뛰어넘는 복음의 사람이 사는 맛을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면 부한대로 비천하면 비천한대로 구금이 없이 사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의 믿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능력 자신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하늘을 하늘나라 때문에 웃고 울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생활에 묻혀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되어지는 승리를 여러분은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복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째로 내 마음 속에 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방케 하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복음 생활 이제부터 날개를 활짝 펴시고 하늘을 날으는 알바트로스 신천옹과 같이 하늘이 내 안에 있듯이 모든 것에서 자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현장에 복음전하게 하실 때 복음의 현장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은 열려 있습니다 현장은 우리의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복음 전하다보면 기쁨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믿음 생활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들은 하나 하나 보시면서 천국에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백성이 하나 하나 늘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늘 풍족합니다 편안합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막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꽃길을 걷는 느낌을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아 방주에 대해서 기록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 영화를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고학적으로 보는 사람 하나는 성경 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성경을 엮어서 설명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물로 다 뒤덮으려면 41 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 나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서로 얘기하면서 한쪽은 아니다 한쪽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다. 그러면서 서로 서로 연구한 것을 비취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보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연구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신학자라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의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이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능력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참 여러가지로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불가능한 사건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쪽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 평탄하고 의인의 길은 오히려 험난하고 어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니까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 속에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평안한 환경을 축복으로 주시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싶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저도 세상에 살면서 교회 일이나 학교일이나 개인일이나 참 어렵고 힘들 때 늘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감당할 시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과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결코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을 이길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타할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 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악한 세상에 복음을 위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후대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기적 같은 변화를 이루어 냈는데도 우리의 삶은 기적처럼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없으면 기적이 와 있는데도 그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큰 기회가 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못 보는 것이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앞에 와 있는 문제 응답이 어떤 것이며 문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에 캄캄해 보이지 않는 것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살아도 그때 그때마다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꽃길을 보시고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어 어려울 때 괜히 내가 하는 것 같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아끼며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고 생각하기 보다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충분한 성령인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복음 복음하지만 복음 속에서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복음안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셔서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게 정말 내 삶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반드시 되어집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마음껏 복음 안에서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르셔서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리면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어려워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깊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기 저기 우리 렘넌트들 예배 보는데 그곳에 하나님 친히 찾아주셔서 그들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